

서른 다섯번째學位授與式 거행

“현 사회는 실천적인人材를 갈망”

學士 1,544명 碩士 38명 博士 4명 배출



조완심양

김유정양

김미자양

현진양

고석범군

조은일군

김진아양

고경욱양

△이상선씨 부자

도 함께 거행됐는데 축선학과 장덕지·농학과 임태호·어업학과 김진건·식품공학과 이장우씨가 박사학위를 수여받았고 일반대학원 8개학과 26명, 교육대학원 9개학과 12명에게 석사학위가 수여됐다. <총장식사 2면, 박사·석사학위 수여자 및 논문제목 학위수여자 명단 3면>

‘90학년도 졸업생중 학업우수자에 대한 총장상 및 학장상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장상: 조완심(사학) 김유정(행정) 김미자(관광경영) 현진(영교) 고석범(농경제) 조은일(해양환경공) 김진아(식품영양) 고경욱(식품공)

▲학장상: 김은주(국문) 김현진(영문) 김수희(독문) 김지현(일본) 김윤호(사학) 고은숙(사회) 박미라(음악) 고운산(미술) 김승운(법) 김용국(행정) 오경숙(아간법) 김복희(아간법) 박철우(경영) 김현희(회계) 고광홍(무역) 홍미숙(관광경영) 김수진(경제) 홍철호(아간법) 김희숙(아간법) 한창호(국교) 박성안(영교) 김향수(사교) 현연실(국문교) 김명숙(상교) 현혜경(수교) 김미정(피교(물리)) 강경아(피교(생물)) 강운정(가교) 고충환(체교) 송호진(농학) 이상능(원예) 현호경(축산) 김상무(농화학) 현여숙(농경제) 정영배(어업) 윤금하(증식) 손명호(해양) 고은아(해양환경공) 오동훈(물리) 김승영(생물) 고근미(화학) 김정희(식품영양) 김용덕(식품공) 한재택(기관공) 김용현(통신공) 오원선(에너지공) 성은아(정보공) 양원호(전자공)

師大투쟁 성과없이 끝나

1월 중순부터 각 학과 수업재개·시험 치뤄

「중합대학원 철학의 의무발령령」을 내리고 지난 10월 12일부터 시작된 본교사태 수업 및 시험거부투쟁이 1월 20일까지 수업거부하기로 결의했으나 각과의 사정으로 인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혼선을 빚기도했다.

한편, 지난 1월 23일 2등중강당에서 사대학생회 주관하에, 1백 50여명의 학우가 모인 가운데 있었던 파업정리 집회에서 사대학생회장은 「총파업기간을 통해 우리들은 △학원모임을 정례화시켜 사태를 하나의 「생활대학」로 했으며 △50만 도민에게 중대인의 부담성·현교육정책의 지속성 홍보에 성공

했다. △전사현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작용을 했으며 △전국에 맞춰 「제주지역 교육주체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 1월 23일 2등중강당에서 사대학생회 주관하에, 1백 50여명의 학우가 모인 가운데 있었던 파업정리 집회에서 사대학생회장은 「총파업기간을 통해 우리들은 △학원모임을 정례화시켜 사태를 하나의 「생활대학」로 했으며 △50만 도민에게 중대인의 부담성·현교육정책의 지속성 홍보에 성공



▲지난 2월5일에 있었던 본교와 나가사키대의 학술교류협정조인식에서 金澤玉총장이 협정문을 남돋하고 있다.

長崎大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수산학부간의 교류→전 학술분야로 확대

교직원 및 학생교류등...구체적 사항 양대학 협의하에

본교와 나가사키(長崎)대학간의 학술 및 교육교류에 관한 협정이 지난 5일 金澤玉 총장과 스즈키야 히데오(土山秀夫)대학장에 의해

체결됨에 따라 외국대학과의 학술 교류에 있어 또 하나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

이번 협정 조인은 88년 본교 해안과학대학과 나가사키대학 수산학부간의 실선선 상호방문, 연구자의 교류 등에 국한했던 교류협정을 전 학술분야로 확대 교류하자는 토산秀夫대학장의 제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추진된 것이다.

이번 협정으로 나가사키대학과 이루어질 교류내용을 보면 ▲교직원 및 학생의 교류 ▲학술 및 교

육에 관한 자료, 정보 등의 교환 ▲공동연구의 실시 및 심포지움 등의 개최이며,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양대학의 협의하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학술교류 협정은 전학술분야를 대상으로 상호교류의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 및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비단 그뿐만이 아니라 교류를 통해 한·일 양국간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工科·自然科學大 학장 선출

자연대학장에 洪性樂교수

공과대학장에 金萬守교수



자연과학대학장에 洪性樂(물리학과)교수, 공과대학장에 金萬守(기공학과)교수가 각각 지난 5일, 11일 소속대학 교수직선에 의해 선출됐다.

자연과학교수 34명중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일 실시된 자연과학대학장 선출에서 洪性樂교수가 19표를 얻어 당선됐다.

그리고 지난 11일 실시된 공과대학장 선출에서 金萬守교수가 공과대학교수 35명이 참가한 가운데 19표를 얻어 당선됐다. (사진右)

한편 이번 학장선출은 현재 자연과학대학 吳文儒(생물학과)학과 공과대학 宋大猷(식품공학과)학장이 2월말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선출학장의 주요 약력은 다음과 같다.

- ▲ 洪性樂 자연과학대학장
△ 42년 대구출생
△ 68년 경북대학교 이학사
△ 70년 경북대학교 대학원 이학석사
△ 85~86년 미국 Purdue University 객원교수
△ 87년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이학박사 학위 취득
△ 現 물리학과 교수
▲ 金萬守 공과대학장
△ 38년 부산출생
△ 63년 부산대학교 졸
△ 81년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
△ 71~80년 국립 부산공업대학 재직
△ 現 기관공학과부교수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

23일 거행 49명 졸업생 배출

경영대학원 제1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이 오는 23일 오전 11시부터 金澤玉총장, 金範國경영대학원장 및 사회각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번 수료식에서 고인수(제주부시장) 원우회회장과 김명천(한진그룹 제주지역개발본부장) 원우회총무에게 표창패, 그리고 양태관(경기회화 대지상사대표) 원우회부회장에 공로패가 각각 수여된다.

한편, 최고경영자과정 원우회에서는 졸업기념품으로 경영대학원에 약 1천만원 상당의 컴퓨터, 레이저프린터, 복사기 등의 비품을 기증했다.

「예비대학」개설

각 학생자치기구 21일부터

‘91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제2기 예비대학」이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각 단대학 학생자치기구 주관하에 개설된다.

신입생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신입생들에게 올바른 대학관, 사회관 정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 예비대학의 공통적인 주요행사 내용을 보면 북, 장구, 달뿔 등을 전수하는 취미반 운영 「

둘하르방

실존주의적 思考

세상을 보는 시각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먼저 세상이 자체의 논리에 의해 움직인다고 보는, 다시말해 세상은 인간과는 무관한 고유의 원리에 의해 움직인다고 보는 객관주의가 있고, 이와 반대로 세상은 전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 즉 인간의 실천에 의해 가동되어진다고 보는 주관주의가 있다. 전자를 구조주의적 시각이라 하고, 후자를 실존주의적 시각이라 한다.

이러한 상반된 두 시각은 「한국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의 실태 원인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한국사회의 구조를 문제삼아 그 원인을 설명한다. 즉 민주화에 장애를 유발하는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하

여 책임을 사회구조에 귀속시킨다. 반면, 후자의 입장에서는 사회체제·구조는 어느 나라든 매일반이라고 하여 제쳐두고 결정적인 것은 시민들의 민주주의의 결여, 민주적 태도의 결여에 있다고 보아 각 개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킨다.

이제 본교도 39년의 연륜 속에 35회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을 갖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본교는 이류대학, 삼류대학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이라는 지리적 위치, 혹은 대학자체의 행정·교육체제 속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 우리 자신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만연된 패배의식과 그로 인한 노력과 의지의 결여가 본교를 이류·삼류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졸업하는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실존주의적 사고를 당부하고 싶다. 모든 것은 자신의 실천에 달린 것이다. 주어진 위치에서 성실히 생활하고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줄 일이어 한다.

어쩌면 대학문을 나서는 이 순간 삼척김의 희열보다 원지도를 아쉬움과 허탈함으로 착잡함을 느끼게 될 지 모른다. 그러나 그 감정을 한때의 감정이 아닌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재충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 기뻐하며 거두어 들이리라. 씨를 뿌려 주고 돌려 돌려 나가는 자, 곡식단을 안고서 노랫소리 흥겹게 들어올리라」라는 성경구절을 되뇌어 볼 필요가 있다. 성장에는 반드시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만 한다. 병든 조개껍질이 진주를 품을 수 있다고 한다. 졸업의 의미를 되새기며 항상 새로운 출발을 하는 진취적 기상과 개척정신을 가져 주기 바란다.

인생의 실질적 완성은 아직 멀다. 이 순간 냉철하게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자신의 실체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을 빈다.

【略】

여러분의 영광스런 卒業을 축하 합니다

會長 梁 性 厚

常任副會長 高 永 瑛

副會長 金 哲 昇

副會長 梁 奉 圭

副會長 邊 聖 根

指導委員	金時顯	指導委員	玄容駿	指導委員	白子勳	理事	高應三	理事	高鍾健	理事	高京旭	理事	金南植	理事	金永澤	理事	金永昌	理事	孫裕遠
金仁卓	黃彥澤	金鍾培	姜柄燦	金武昌	金志勳	高昌實	姜時玟	白典官	慎浩根	高景澤	姜昌植	金榮洪	朴成七						
全昌壽	康泰淳	事務局長	姜東三	金武昌	高昌秀	高南旭	姜東三	姜東三	許京孝	朴卿久	金榮訓	姜志勇							
玄化珍	夫宅煥	企劃理事	高庸文	申守容	金景錫	金昌顯	高南旭	高南旭	李時文	姜宗豪	夫彰敏	金昌驥							
康昌炫	韓昌榮	總務理事	梁奉鎰	申弘湜	吳海鍾	韓允三	金昌顯	金昌顯	吳友清	高正彥	高錫根	金富一							
高詰洙	邊萬根	財政理事	梁敏弘	吳海鍾	金映殷	康相鎰	文斗玟	文斗玟	尹良洙	金守眞	張德文								
金順五	李致根	組織理事	金炳澤	梁時旭	許順七	金文瑄	李明豪	李明豪	金昌準	許益善	許香珍								
金榮敦	金順澤	文化理事	韓康洙	許順七	吳勝治	金文玉	金明必	金明必	姜成吳	趙城完	宋在倫								
金燦治	吳春卓	涉外理事	康共弼	吳勝治	梁淳祕	金相秀	文泰鶴	文泰鶴	高泰玉	金映大	高彰根								
金昌辰	康昌洙	事業理事	夫萬根	梁淳祕	姜詰周	金仁圭	吳現道	吳現道	高有峰	金洙賢	金勝立								
金泰琰	姜通源	獎學理事	夫晴子	姜詰周	梁眞濤	白元弘	趙南棋	趙南棋	夫權植	玄光洙	金斗和								
文在錫	金潤琪	女性理事	張大建	梁眞濤	吳光協	梁元赫	鄭順澤	鄭順澤	金良順	文榮燦	梁永哲								
徐成玉	申溶俊	體育理事	李文教	吳光協	許仁玉	李君先	車柱弘	車柱弘	李文哲	梁昨勳	白文瑛								
申斗奉	左東日	弘報理事	金性杓	許仁玉	玄商鍾	許大振	金斗萬	金斗萬	鄭秉植	姜榮峯	金斗元								
梁東義	康禎殷	監事	李旭珩	玄商鍾	咸元宗	金益洙	朴文基	朴文基	金榮俊	金德男	金勇作								
梁重海	趙明哲	李旭珩	玄鶴淳	咸元宗	金益洙	宋哲駿	姜登好	姜登好	姜永周	玄進五	金仁培								
李君普	玄鶴淳	咸元宗	金益洙	宋哲駿	金勝正	高良杓	金勝正	金勝正	高良杓		李志珩								

社說

졸업생에게 주는 글

대학 졸업의 진정한 의미는 대학생활의 마지막이라는 데 있지 않고 사회생활의 시작이라는 데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작 쪽보다는 마지막 쪽에 더 큰 비중을 두려 하는 게 보통이다. 이러한 태도를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쪽보다는 시작 쪽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지닐 때야 비로소 모교, 사회, 직장 등과 졸업생 자신의 관계도 올바르게 설정될 수 있다.

졸업하고 나서 졸업을 실감하게 하는 일은 우선 모교와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매일 드나들며 강의를 받거나 토론하던 그 강의실은 이제, 앞으로 가끔씩 뇌리에 떠올리게 될 추억의 한 장소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들도 모교와의 관계에는 따뜻함과 그리움이 스며있지만 사회와의 관계는 냉정하기까지 하다. 모든 규범과 규칙이 대학생활 때의 자유로운 행동방식을 철저히 제한한다. 직장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직장은 조직이므로 무엇보다도 조직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요구한다.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없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모교, 사회, 직장 등과의 성공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외형적인 자기관리뿐만 아니라 몇가지의 정신적 각오가 있어야 하는데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의 '창조적'이란, 모든 사물에 대한 사고에 있어서의 발전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측면을 말한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앞선다면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없게 된다. 그러므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앞설 때 발전과 함성이 있다. '술도 없다'는 생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란 없을 터이므로 쓸모 없는 것을 쓸모 있게 전환시키는 노력, 즉 가치 지향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행동이란 대부분 그렇듯이 정확한 인식의 바탕이나 이성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기 보다는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두 가지 행동방식의 결과에 나타나는 차이는 엄청난 것이므로 바람직한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성적 행동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할 것은 졸업 이후에도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엄청난 난 지식과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현실에서,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퇴보를 의미할 수 있다.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발전일 수 있다.

졸업생들에 대한 축하는 아무리 반복되어도 지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축하하고 축하받는 것만으로 졸업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경우는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졸업의 의미는 훨씬 더 크고 깊은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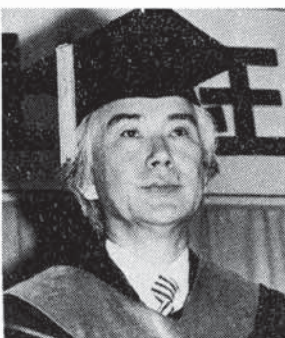
痛大漫評



□무조건 돌격!

'90學年度 學位授與式 式辭

투철한正義感과 의연한實踐力을



總長 金 滢 玉

'90學年度 學位授與式에서 영예롭게學位를 수여받으시는 博士, 碩士, 學士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貴賓, 敎授, 職員, 在學生 그리고 여러분의 家族께서 친히 出席하신 가운데 거행되는 이 성대한 式典에서 여러분에게學位稱號를 수여되오니 숙연한 마음 심금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學位를 받으시는 여러분도 지나온 大學의 學業, 濟州大學校에서의 學業生活를 되돌아 생각할 때 갖가지 感慨가 벅차게 가슴을 메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學位를 수여 받으므로써 學業稱號의 기쁨이 완결되어 在學生이던 신분이學位稱號에 따른 卒業生으로 바뀌었습니다. 國立濟州大學校가 여러분의

母體로母校라면 여러분은 그母體에서 分化된 分身이요 卒業生인 것입니다. 母體와 分身, 母校와 卒業生 사이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因果律로 緣關係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社會進出 모습은 그대로 母校의 모습으로 부각됩니다.學位를 수여 받으시는 여러분, 人生의 새로운 출발을 뜻하는學位授與, 거기에 함축된 의미를 깊이 인식하는 한편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에 이르러까지 여러분을 지원하고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를 각별히 생각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몸 이상으로 온갖 정성을 바치신 父母님과 家族, 여러가지로 충분치 못한 研究條件과 教育環境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지도하여오신 敎授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學問과 人生을 談論하면서 격려하며 힘이 되어준 友朋이던 學友, 여러분의 前途를 축복하며 同窓生으로 맞이하는 先輩님, 善意로서 장학금을 지원하여주신 人士와 贊助회를 비롯한 여러단체, 이제 母校가 될 濟州大學校의 발전을 위하여 알게 모르게 관심을 가지셔서 성원하고 계신 國內外人士, 그 모든 분들의 후원에 깊은 感謝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곧 人間의 마음 중에서도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여러분, 오늘의學位授與儀式은 1990년대 첫번째의學位授與儀式입니다. '90년대는 國家社會의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現實課題를 안고 있으니 우리는 現實과 未來를 위하여 現實認識과 改革實踐意識의 과감한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여러분은 社會의으로 自立 獨行할 수 있는 역량을 大學 또는 大學院課程에서 함양하였을 것이고 명실공히 어엿한 知性的 成人이 된 것입니다. 물론 專攻領域의 學術을 어느정도 수확하였느냐는 것은課程에 따라 異질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으나, 大學教育課程은 學術에 관하여 教育하는 한편 여러분의才能을 개발하여學位授與 후 社會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實踐力을 함양케 하는 것이요 社會의 進出을 위한 준비과정인 것입니다.여러분, 國際情勢는 유럽공동체가 내내까지 政治 經濟的으로 統合된 유럽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었고, 북미주에서도 共同體형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북방 국가들에서도 政治 經濟的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國際情勢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汎世界의인 共同體형성이라고 볼 때, 우리나라에서의 南北統一은 民族史的 必然性 외에 世界史的 의의도 큰 것으로 생각되며 진전되고 있는 국제화는 점차 그 속도와 범위가 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여러분은 우리民族의 統一國家와 9년 후에 본격화 될 것으로 내다보는 다음세기, 즉 國際化世紀의 主人이 될 것이며, 國際社會가 새롭게 國力에 따른 서열과 질서를 가다듬는 時代의 참신한 일꾼으로 헌신 공헌하여야 할 것입니다.母校와 家族 그리고 國家社會는 젊은이와 새로운 가능성을 갖고 있는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의 政體뿐 아니라 國家社會의 未來까지도 여러분의 역량과 노력에 달려있음을 알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여러분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투철한正義感과 의연한實踐力으로 自立과 民主의 大道를 걸어나가야 합니다. 많이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은 그만큼 정의감과 실천력이 있어야하며 公正하고 社會의 調和를 이룰 줄 아는 명석한 知

性으로 자기중심적이거나 편협된 사고를 바로 잡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想像의 세계와 理論의 세계, 말과 글로 인식한 세계와 現實은 일치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견 非論理的인 세계, 價值觀이 혼돈된 세계의 社會現實에서도 여러분은 당당하여 걸음을 앞서서는 안됩니다. 大學教育은 본시 理想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나 그 理想과 現實, 理論과 實踐은 반드시 일치되는 것이 아닌 것이며, 여러분은 졸업후 이러한 새로운 經驗의 세계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經驗世界에서 여러분은 不正과 墮落에 접하지 말 것이며 眞善과 責任 回避를 일삼지 않는 知性人의 矜持를 지녀야 합니다. 自身과 家族, 이웃과 社會, 크게는 國家와 人類을 위하여 되돌릴 수 없는 귀중한 生命을 보람차게 살겠다는 嚴肅한 誓約을 이 자리에서 마음 속 깊이 다져주시기 바랍니다.지금 우리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人間性을 기반으로 한 슬기롭고 실천적인 人材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은 개개인의 利害를 초월한 비르고 公正한 倫理觀과 높은 價値를 추구하는 實踐的知識과 技術을 갖춘 人材에 의

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당면 現實課題들은 人間 內面世界의 질과 깊이를 심화 확대시키는 복지향적 사회체제의 형성과 科學技術을 활용하여 物質世界인 경제생활을 중요하게 해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現實課題들은 새로운 經驗世界에서 여러분의 實踐行爲에 의해 전개될 것입니다.여러분은 母校인 大學과 社會를 잇는 매체이며 母校의 名譽를 빛내야 할 졸업생입니다. 여러분은 母校의 자랑이며 후배인 재학생들에게는 未來의 表象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회에서 행하는 값진 활동은 후배들에게는 模範이 될 것이고 學究精進의 의미를 재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大學校가 지나는 바 사회적 사명은 大學自體의으로 다해낼 수 없으며 졸업하는 여러분의 진실한 價値追求의 社會활동과 母校에 대한 깊은 관심에 의하여 다 해낼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이 式典에 出席하신 貴賓께서 國立濟州大學校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또한 졸업생의 家族, 敎授, 職員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學位를 授與받으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지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감사합니다.

無論有說

16년간의 장구한 시간들을 우리는 학교교육이라는 정규교육기관을 통해 "지식을 터득"하는 일에 몰두해 왔다. 단순한 문제풀이와 암기에서, 학문의 세계를 더욱 깊고 넓게 확장하기 위한 그 노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대한 것이었다.

지식 터득의 최고 학부인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생들에게 그동안 학문을 연마해 온 그 수고와 풍성한 결실을 얻기위해 "지혜를 터득"하는 일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졸업생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삶의 개척자요 그 주역으로서 책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삶의 중요요소는 지식, 능력,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터득"함에 있기 때문에 가치 있고 의미있는 풍요로운 삶을 열망하는 우리들은 먼저 지혜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유태의 격언 중에 "물고기 한마리를 주면 그것으로 하루를 먹고 살 수 있으나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것으로 일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이 격언은 삶의 현명한 방법인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지식의 세계에서 지혜의 세계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식이 가르쳐 주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에 새로운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은 단순한 기존의 지식이 아니라 현명한 지혜이다. 오늘 배운 지식은 내일 함께 있어버릴 수 있으나 한번 품에 익힌 지혜는 좀처럼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다. 지식이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지혜는 '어떻게'에 해당한다.

일생의 성공을 위해서 풍부한 지식이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지식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명한 지혜이다. 지식의 소유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여러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그 지식을 어떻게 구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오직 현명한 지혜의 소유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적 성공의 비결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사실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할 줄 압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래를 조망하고 그것이



許鐵洙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또한 자신이 터득한 지식의 중요성과 가치성을 인식하여 필요할 때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일의 순서를 구별하고, 가치의 미를 알고 그 비중을 판단하고 처리할 줄 안다. 즉, 먼저 할 일과 나중할 일,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더 높은 가치와 낮은 가치를 판단해서 올바르게 처리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그는 현실을 그대로 대면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결코 회피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는다. 그리고 확신과 신념에 찬 사람이며,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반대이다. 이와 같이 삶의 풍요로움과 의미

와 가치를 더해주는 지혜의 터득은 자연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지혜는 그것을 부단히 열망하고 추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지혜의 중요성을 알고 준비하며 노력하는 사람에게 지혜의 문이 열리게 된다.다음으로 지혜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깊이 생각한다는 의미는 지성, 반성, 묵상, 사색, 명상함을 뜻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인생의 열매를 성숙시키는 목표에 도달하는 바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어리석어 삶을 실패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본다. 지식 이 모자람도 없고, 재물이 부족함도 없지만 삶이 맹목적이고, 무지적이며, 실패적이다. 이는 "삶의 기술"인 "지혜"가 부족한 탓이다.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발전시켜야 할 매우 중요한 본가정에 서 있다. 자신의 삶을 보람 있고 가치있으며 풍요롭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 지혜를 터득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지혜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재산이며 슬기롭고 현명하게 살아가 수 있는 기술이다.

사범대학 부교수

심 판

「폐」만 문제는아랍인에게 맡겨야

「주인의 작은 정착」이라는 의미를 가진 쿠웨이트.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이 곳은 이라크 오만 왕국의 법집사하에 있는 비스타 지역의 일부로서 교역의 중심지였다고 한다.

1921년 영국은 쿠웨이트를 병합하고 난 이후 쿠웨이트가 독립하는 1960년대까지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연대를 주장하는 민족주의자들을 계속해서 탄압한다.

이라크정권은 쿠웨이트지역 뒤편 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나 국내외적 문제에 의해 실패를 거두지 못한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2일 고토화복을 위해 쿠웨이트에 대한 무력 점령을 하게된다.

이에 대해 쿠웨이트를 지지하는 미국은 즉각 중동지역에 대규모 군 병력을 보내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미국은 서방세계와 함께 정치적·경제적 압박을 가하는가 하면 지난 1월 17일에는 이른바 「다국적군」을 구성, 현대판 십자군 원정을 감행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여기에 제고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드러내는 미국의 군사행각

이다.최근에 국내 마약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파나마에서 치른 사건을 보자.미국은 노라에가라는 마약의 운송을 체포하기 위해 한 주권권을 불법 침공한다. 약의 운송을 체포한다는 것까지는 제재투고라도 자국군대도 아닌 외국군대가 타국에서 전투를 한다는 것은 한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는 상식상의 행동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한편 이스라엘이 6일전으로 팔레스타인 지역 등 일부 아랍 영토를 점령했을때,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이렇다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그런데도 「정의의 사자」임을 자처하고 이라크를 평정하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특히 미국이 이번 걸프전을 치르는 이유 중에는 경제적 이윤(利文)도 고려한 것이라던 말이다.이라크의 문제는 이라크 스스로 해결토록 해야 한다. 더욱이 신메르트 시대라던 전쟁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지금 미국이 행하는 군사행각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그렇다면 세계에는 온갖 부도덕한 행위가 정의의 이름으로 설칠 것이 분명한 일이므로 말이다.【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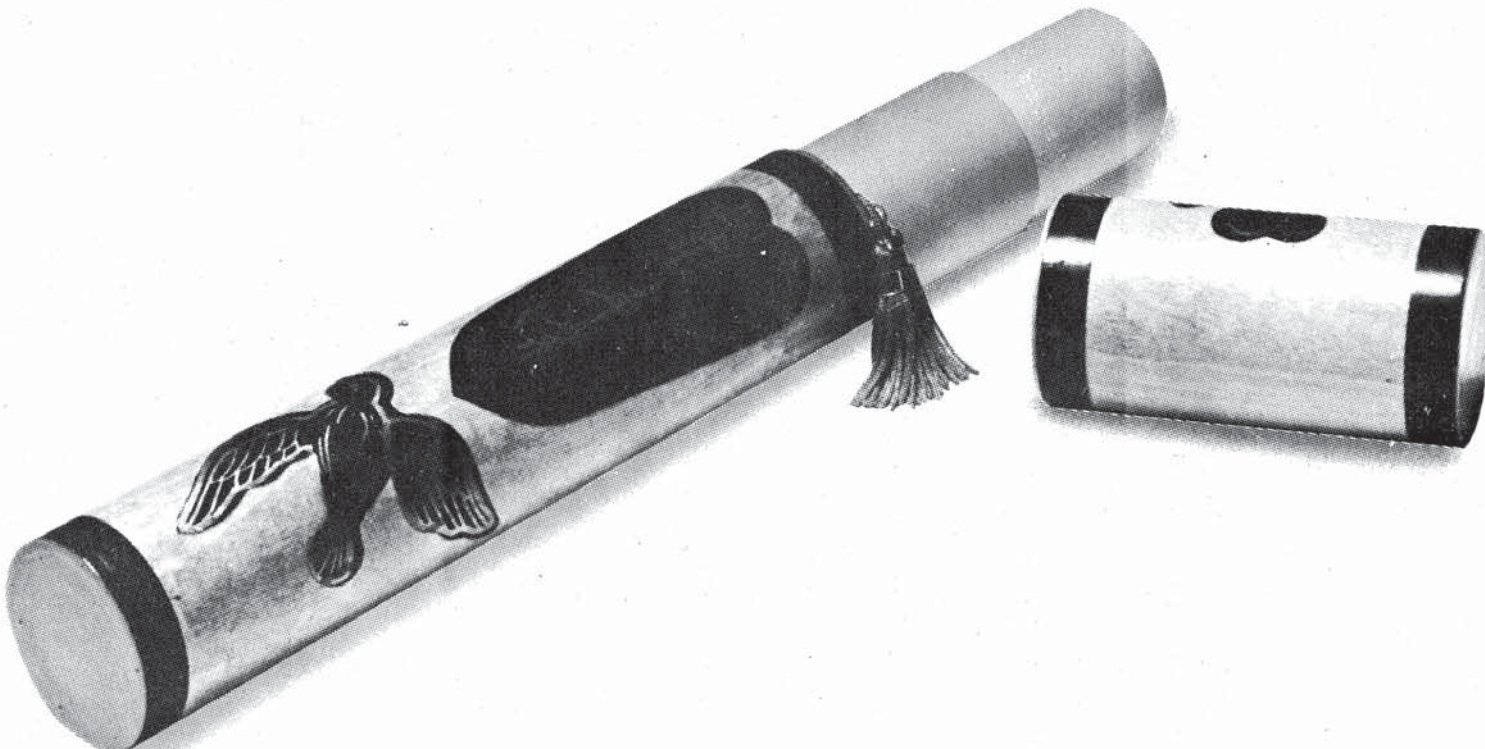
나에게 띄우는출사표(出師表)

제갈량이 이웃 위나라와의 결전을 앞두고 황제인 유선에게 띄운 출사표. 그 글은 결의와 비장함이 오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읽는 이의 가슴을 서늘케 합니다.대학 4년을 뒤로 하고 사회 속에서의 자기 실현을 위한 진군을 시작할 사람들... 캠퍼스에서 얻은 것들에 머물러 만족하지 않고 뭔가 큰 족적을 남기기 위해, 자기에게 띄우는 출사표라도 써야 할까 봅니다.

졸업 - 인생에 있어 이 한때의 의미가 너무도 소중한기에.

포항제철은 다음 세대의 행복과 다음 세기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 Ltd.



제1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자 명단

강기주=제주권 관광상품의 다양화와 촉진활동에 대한 고찰
강봉주=경제성장과 복지정책
강시현=유통경로상의 효율적 리더십의 고찰
강시호=산업사회와 경영자의 책임
강영철=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강정일=소매업의 경영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강태선=소집단 활동과 조직개발
고광수=지방행정 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에 대한 고찰
고경진=자동차 여행관광에 관한 고찰
고경택=경영합리화를 위한 조직속의 인간관계의 고찰
고달홍=제주지역 관광호텔업의 경영개선 방안
고민수=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천방안
고성남=지방화시대 지방자치와 지역경제구조 체계개선 발전방향
고일문=리더십 이론에 관한 연구
고정수=경영자의 사회적 책임
고성근=제주지역 택시업계의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고종진=종업원의 경영참가제도에 관한 연구
고종인=조직내의 스트레스 관리방안
고승남=남북 경제교류의 발전성 및 발전전망
고철=고대인=노사분규 원인과 노사관계의 정립방향
김갑철=직무분석과 직무설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김승태=제주지역 해양관광개발 시설투자의 방향
김승민=한·소 경제협력의 실태와 대응책
김영현=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찰
김창구=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관한 고찰
문경만=조직에서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문성진=농업자금의 공급과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문태수=토지문제와 효율적인 관리방안
문태훈=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고찰
박인상=한국의 민족성과 기업행동
박위규=산업사회에 있어서 전통적가치의 붕괴와 도덕교육 방향
성창진=제주도 관광산업의 개발방향(지역개발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송상택=제주도 슈퍼마켓의 실태 및 현황(도·소매업의 현황)
윤두환=농특산물의 관광상품화 방안
양영부=제주지역경제 균형발전을 위한 방향 모색
양태규=소비자행동과 의사결정에 관한 고찰
양태관=컴퓨터를 이용한 중소기업 경영합리화에 관한 연구
오덕성=기업성장 전략과 조직변화 모델에 관한 고찰
오병택=우리나라 공직자 윤리확립의 재해요인에 관한 연구
오유규=청과물의 유통구조에 대한 이론적 고찰
오승현=관리의 리더십 기법
윤문호=우리나라 노사협의 제도의 특색에 관한 고찰
윤영일=지역개발전략으로서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이영익=협동조합의 최고경영자 연구
이태림=새마을운동 기본정신이 기업의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임정환=지역개발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조후빈=지방 공기업의 전환적 관리고찰
홍여현=공기업의 기업문화와 사회적 책임(전력사업을 중심으로)
홍창수=근로생활의 질(QOL) 향상을 위한 연구
(소계: 49명)

교정을 떠나며

많은 시행착오 겪어보길
선택하고 용서하며 인내로

김상국 사회학과

대학 4년간을 마무리하는 졸업식이 다가오는 느낌은 평상시의 별다른 바 없거나 하는 생각이 든다. 밤새 이틀 쓰기 위해 뒤척이면서 색다른 느낌을 가지려고 노력해 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저 떠오르는 몇 가지 잡념만이 내 주위를 돌고 돈다.

그 첫번째 잡념은 선택이었으며 두 번째는 자존심이었다.

어쩌다 학교에 남아서 이일 저일을 하다가 문득 창 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제주 시내의 야경은 매번 볼 때마다 나에게 색다른 감동을 주었다. 이때마다 내 몸에서 생기가 돌고 생의 의욕이 생기곤 했다. 이런 이유가 아마도 갑자기 고교시절까지 이어 온 나의 야생생각들을 굳히게 된 이유가 아닐까? 요상한(?) 집단에 갇힌 연유로 이 기절은 완전히 몰래 배어 버렸다. 아마도 대학생활을 하며 대학에 온 게 아니라 그 집단생활을 하며 온 게 주 목적이 되어 버렸다. 잃은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지만 결과는 적지 않았다.

그러나 후회는 하지 않는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겠지만 결코 후회하지는 않는다. 그때에 내가 선택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옳은 것이라는 신념이 있었기에 내 주위를 돌고 도는 첫번째 잡념이다.

또 다른 하나의 잡념은 자존심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나의 자존심은 내 도덕적 후배를 감동시키며 일회(?)를 갖고 있다. 누구에게나 자존심은 있다. 그러나 이 자존심을 쓸데없이 세우고 켜는 대학생활을 나는 많이 보아 왔다. 오기와 자존심, 그리고 자존심은 구별된다. 물론 내가 이를 구별하고

행동할 만큼 성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를 구별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대학생활의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한 번의 인내, 선택, 용서 그리고 또 다른 한 번의 결단의 삶을 키워 나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 물론 남들이 모르게 속으로만 삼켜 버렸다.

나약한 생활속에서 벗어나 우리의 참모습 찾아야 할 시기



이경민 행정학과

을 추구해 나가며 대학생활의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 만끽하던 생활들이 우리의 생활들이라 할 수 있다. 대학생활은 사회생활의 핵심인 꽃이었는데, 모두의 기대와는 달리 잘못 인식된 젊음의 나태를 펼쳐는 것 같은 기분을 느껴버린 것이다. 더욱이 우리들 자체가 거대한 외국문물의 흐름속으로 빨려들어가 우리의 것을 잃어버리는 자기 자신이 아닌 자신이 되어 반미국인 반일본인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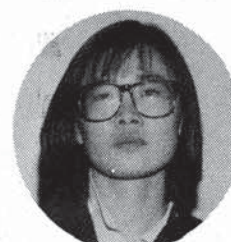
이제,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변질되는 대학문화속에서 우리의 참모습을 찾아야 할 시기이다. 진정한 자비를 확립하려면 저마의 생활과 부단한 연구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 진정한 대학문화 창달을 위해, 새로운 사회의 혁신에 부응하기 위해 나약하고 잘못 인식된 생활속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이상과 세계를 갖길 바라며, 자기성찰의 의미를 재확인 해본다.

지금까지 현실을 부정하며 이상

영에게

마냥 길들여지기 보다
한번 더 살펴보고 다시
생각해 보며 행동하자



오혜영 국어교육과

이제 4학년이 끝남과 동시에 나의 대학생활도 끝이 나는구나. 지금 내고 보면 4학년이란 자리는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닌 생각이 든다. 새롭게 사회인으로서 적응도 해야 하고 앞날을 설계해야 하는 자리다. 그래서 어떤 희망찬 자리라고 할 수도 있을까? 4학년을 지나고 보니 대학이란 참으로 멋진 시절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학인은 대학인 나름대로 사회에서 커다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대학인은 이제의 혼자생각할 수도, 분석할 수도 있는 이들이기에, 마냥 주어진다고 입맞에 맞게 길들여지기 보다 살펴보고 다시 생각해 보면 그에 맞고 일맞은 행동을 취해나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동시에 사회가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바로 대학인이 바로 사회 모든 이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게 아닌가 생각된다.

그럼, 부러운 대학인 영, 열심히 살자꾸나.
추운 이월에

사람들

최고경영자과정 수료하는 윤영일씨

“교수 초빙에 앞서 원생들과 상의하고
교과목도 좀 더 다양했으면...”

오는 23일 경영대학원 제1기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는 윤영일(본교 72학번·사업가)씨를 만나 최고경영자과정에 관한 몇가지 사항을 들어 보았다.

△ 그동안 최고경영자과정에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다고 느꼈던 것이 있다면?

— 개인사업을 하면서 최고경영자과정을 다녔기 때문에 중요한 손님이 찾아와도 제시간에 만나지 못하는게 가장 힘들었다.

두번째는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논문에 대한 자료수집기간도 부족했고 논문작성시간도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 몇몇 원생들에 의하면 교과과정과 강의내용이 보수적이고 진부하다고 하던데?

— 대학측이 경험이 없고 최고경영자과정이 처음이라서 시행착오로 생각하지만 단조로운 측면도 없지 않았다. 가능하다면 다음 학기부터라도 교과목을 최고경영자과정에 필요한 것만

국한하지 말고 제주도 제반문제에 대한 전문화 또는 사회제반 현상을 탐구할 수 있는 내용의 과목들이 폭넓게 설치되어 우리 몇가지 사항을 들어 보았다.

△ 앞으로 최고경영자과정에 어떤점이 시정됐으면 하는가?

— 교수들 초빙할때 최고경영자과정 원생들과 어느정도 상의를 한 후 교수 초빙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강의를 하는 교수들 구성도 경영학과 교수들만이 아닌 타대학 교수도 함께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건, 다음 원생들을 위해 입학기준을 명확히 선정했으면 한다.

△ 행정대학원에 최고관리자과정이 올해 신설됐는데 최고경영자과정 원생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최고관리자과정을 신설하기전에 교수들이 심사숙고를 해



아하는데 일개모르게 법정부·경상대학교수들의 일일이 있지않았나 생각한다.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한다면 제주도라는 특수성과 인적자원을 감안해서 두 과정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두 교과과정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학생제가 인생을 좌우하지할 수 있는 기회에 서 있는 시기이기때문에 자기절제도 갖고 사회에 대해서도 알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중요한건 대학생활이 왜인지는 것과 인간성이 상실돼선 안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鄭】

개신간

「사랑으로 매긴
성적표 2」-이상석 지음

이 책은 89년 전교조 결성으로 인해 해직된 교사의 학교와 교육현실에 대한 생각과 해직자의 일상을 담은 일지형식의 글을 모은 것이다.

해직되기 전의 교단생활과 전교조 가입과정 그리고 해직자의 생활을 통해 겪은 인간적인 고통과 자기반성 등의 체험담을 모두 6부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는데, 그 중 3부 「거듭나는 교사가 되기 위하여」에 실린 「굴종의 삶을 떨치고는 제3회 전대일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친구·4천3백원>



○ ... 질서 확립(?)
“차들은 오른쪽길 사람들은 왼쪽길”이라는 국민학교 시절의 통용을 떠올리는 작인이 교내에서 진행중이라고.

차량전입금지 표지판이 생기기 무섭게 교내도로에 중앙선, 횡단보도 등을 페인트로 그려놓고 학생들의 자유의 영역이었던 학내미도 도로를 차들에게 양보하고 학생들이 밀려나게 돼.

교내에서 조차도 차량의 전횡질주가 허용될 판이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호등(?)도 세워야 하지않겠소.

○ ... 선배들이여! 투쟁정신으로...

입학하자마자 1년내 중간고사, 기말고사 거부하며 어용교수퇴진 등 학원민주화, 자주회맹으로 심신을 단련했던 선배님들이 이제 정든 이라들을 떠난다. 간절히 무량.

부디 선배님들 생활선언으로 나가시더라도 이라골에서 길고 다투는 선비정신을 잃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과감히 일어서서 불의척결에 앞장서자.

○ ... 속보인데, 속보여
미국답게(?) 자유를 수호하고 불의를 쳐부순다는 그릇된 슬로건을 내걸고 중동에서의 「파스아메리카나」를 꿈꾸는대.

세계평화와 중동의 정치적 안정을 방자한 신문기실, 이라크초토화가 과연 세계평화를 위한 것인지, 식민지정복 확장을 위한 것인지 앞사람은 다 안다.

투쟁정신으로

○ ... 퇴보라고 말로주지

50년대 무상원조니 뭐니하며 친근감(?)있게 다가오던 미국이 결국 본질을 드러내기 시작.

“한국은 지난 40년간 자유를 누려온데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해야한다며 우리에게 걸프전 장비공로로 4억5천달러를 내라고 요구.

우리의 우방답게(?) 지난 9월에는 수재의연금으로 2만5천달러를 보내오더니, 7주도 안돼 무려 1천5백배가 넘는 4억5천

달러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철저한 「퇴로주고 말로받자」는 논리로 무장된 그들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런지.

○ ... 정부의 재벌사랑
수출부진, 임금인상 등으로 골치아픈 재벌들에게 반가운(?) 손님이 출현했대기에 알아보니.

다름아닌 재무부가 들고나온 국제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의 확충에 꼭 필요하다는 「재벌여신규제완화」 정책이 그것.

농민의 추곡수매가, 노동자 임금인상률과는 대조적으로 재벌을 골치아픈 사탕하는 정부의 깊은(?) 수서에서의 같이 뒤에서 검은돈 핑계하는 것은 아닌지.

○ ... 과민반응 증후군(?)
경찰이 「발등의 불만끄고 보자는 식의 작태를 서슴치 않아 원생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데.

지난 1월 30일의 금악리민 1백여명의 강제연행과 지난 2월 8일의 대학생 1백여명의 불발연행이 그것.

투쟁의지를 쇄이기는 커녕, 달리는 달에 채찍질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요.



經營大學院 第1期 最高經營者課程 修了를 祝賀합니다

修了者 名單

姜基周	姜逢周	姜時玆	康始鎬	姜英徹	姜昌一	康泰善	高光秀	高京珍	高京宅
高達弘	高玟洙	高碩男	高一文	高長壽	高性根	高鍾健	高鍾安	高昇岩	高泰仁
金國衡	金丞泰	金勝萬	金永千	金昌玖	文璟萬	文懷珍	文泰秀	文泰勳	朴仁相
朴偉奎	成昌善	宋聖澤	宋武勳	梁榮富	梁和奎	梁泰寬	吳德成	吳炳鐸	吳龍奎
吳應天	尹文湖	尹永日	李承益	李泰林	林正漢	趙厚反	洪如天	洪昌洙	

濟州大學校 經商大學 教職員一同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教職員一同